



초산돈의 수유기간 연장 효과

- 2산차의 산자수 저하 방지 새기술 -

유진현역
(본회 김천지부장)

덴마크의 양돈연구가인 잔 크리스텐슨 씨는 1산차의 모돈을 28일만에 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덴마크의 50개 이상 되는 양돈장에서는 초산돈의 비유기간을 32~35일까지 연장시킴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크리스텐슨 씨가 자문을 받고 있는 양돈장들을 주위에서는 “수퍼 리그”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1모돈당 연간 평균 이유두수는 26두를 넘어서고 있고, 각 양돈장에서 초산돈의 비유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실천하며 이유후 발정까지의 기간 단축, 2산차에서의 산자수 개선이라고 하는 좋은 결과를 달성하고 있다.

“우리들은 수년간 2산차에서의 산자수 저하라는 문제로 고심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초산

돈의 이유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경산돈은 28일 또는 21일에 이유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초산돈에서 특히 산자수가 많고 4주간 수유한 경우의 결과는 저조했다. 원인은 초산돈의 체중이 지나치게 적음으로 인해 다음 번식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크리스텐슨 씨는 말한다.

“초산돈의 이유를 35일까지 연장시키면 다음 번 교배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발정재귀는 보다 빨라지고 발정정후도 보다 분명해진다. 우리들의 경험으로는 이유후 발정까지의 기간을 5~6일 단축시킬 수 있었다. 이로써 분만후 6주 안에 다음 발정을 맞을 수 있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초산차에서 12두 분만한 모돈이 2산차에서도 13

두 이상 분만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2회 이유를 실시한다.

비유기간을 연장했다고 해서 초산돈의 지나친 체중감소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크리스텐슨 씨는 이 문제에 대해 전략적 급이방법과 초산돈의 「2회 이유」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에 의해 극복하고 있다. 즉, 첫번째는 21일에 자기 자돈을 이유하고, 그 후 35일째까지 10두 이내의 양자에 수유하여 두번째 이유를 실시한다.

자기자신의 자돈을 이유한 직후 1~2주령의 자돈을 14일간 포유하는 것은 분만후 1주간 정도에서 도태하는 모돈 등으로부터 이유한 자돈을 사용한다. 이 때는 폐용모돈을 이동한

후에 돈방에 초산돈을 이동시킨다. 모돈을 집단관리하는 경우에는 양자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양자로서 사용하는 데 적당한 일령의 자돈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크리스텐슨 씨는 말한다.

양자가 어릴 때는 수유량도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돈의 체중 감소는 급이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오히려 이제 막 양자에 수유하기 시작한 초산돈은 비유량이 지나치게 많아져 MMA증후군에 걸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급이량은 1~2kg 감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모든 자돈에 대한 「보조사료」를 1일령부터 준비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보온상자 옆에 액체 밀크용 사료통 등을 준비해둔다. 이 대용유는 물 1리터에 대해 대용유 75g 정도를 섞은 것으로, 일반 권장치의 약 절반 농도로 한다. 이는 설사를 방지하는 목적과 자돈에게 본래의 수유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10일령 이후에는 분말 인공유로 바뀌어서, 이유전 1주일만 인공유, 펠렛 위에 소량의 물을 섞어 채식을 촉진토록 한다.

이 뭍은 밀크를 줌으로써 자돈의 입 주변 염증을 방지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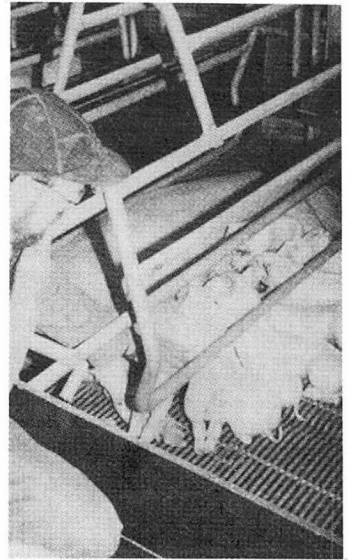
있다. 밀크의 경우에는 파리가 문제가 되지만, 덴마크 양돈장은 전면 스노코 채용과 파리 유충에 기생하는 벌을 사용하여 파리 발생을 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분만돈사의 초산돈은 경산돈과 마찬가지로 액상사료를 급이한다. 1kg의 사료에 3kg의 물 또는 웨이를 혼합하여 파이프라인으로 1일 3회 급이하는데, 배송전에는 사료통이 비어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여 식욕을 확인한다. 또한 과잉급이는 성적의 저하나 비유후기의 채식량 저하를 초래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비유중 사료급여량

분만후 사료급여량 패턴은 보통 3일간 일정량, 4일간 증가의 패턴을 반복한다. 처음의 1일당 급이량은 2kg이다. 예를 들어 분만이 목요일이나 금요일인 경우 월요일 아침까지 일정량(2kg/일)을 준다. 그 후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사료통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매일 0.5kg씩 급이량을 증가한다. 그 이후 또는 주말에는 급이량을 고정한다.

사료급여량의 증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초산돈이나 경산모돈에게 적합한 방



▲덴마크에서는 초산돈 자신의 자돈을 이유한 후 다시 2주간 양자에 수유시키는 방법이 실행되고 있다.

법이다. 지속적으로 급이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나, 급격히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목적하는 급이량의 절정(경산돈의 경우 10kg, 초산돈의 경우 8kg)을 이유전 1주일 사이에 달성할 수 없었다.

두번째 장점은 주말의 작업 변화에 적합하다는 데 있다. 주말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은 돼지의 상태를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급이량을 증가시키려다가 과잉급이가 되기 쉽다. 그러나 주말의 급이량이 일정하다면 관리가 용이해진다. 월요일에 본래의 담당자가 출근한 후 다시 증량을 개시하는 것이 좋다.

초산돈에 양자를 붙일 때에는 1~2kg 급이량을 줄인 경우에는 다시 4일 증량, 3일 정지의 패턴을 수유기간중 계속하면 좋다. 그 목적은 초산돈의 몸 컨디션을 유지하고 다음 번 번식돈에 대비하려는 데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유전 2~4일의 급이량이다. 이는 이유후 발정재귀에 상당히 관련이 깊다. 크리스텐슨 씨에 의하면 이 시기의 급이량은 1일 1~2kg 증량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초산돈의 육성방법

초산돈의 수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초산돈의 분만시 상태가 좋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다시 말하면 초산돈의 육성, 교배, 임신중 관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다.

초산돈의 육성방법이나 초산차의 임신, 비유의 상태는 그 후 이 모돈의 성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품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덴마크에서는 육성기간중 95% 이상의 초산돈에 부단급이를 실시하고 있다. 육성기 최후 4~6주의 목표급이량은 2.7kg/일이다(지방 3~4%, 조단백질 17~18%, 라이신 함량 7.3g/kg).

초산돈이 최초발정한 경우 처음 1주간은 급이량을 2.5kg/

66

분만시 초산돈은 좋은 상태여야 하지만 지나치게 비만해서도 안된다. 또한 임신중에 사료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수유중에 식욕이 저하한다는 문제도 있다.

99

일까지 떨어뜨린다. 그 후 번식영역으로 옮겨가기 1주일전까지 1kg/일까지 급이량을 줄인다. 그러면 발정 2~3회째, 교배를 하는 시점에서 초산돈의 식욕은 높아진다.

초산돈은 8개월령 이상, 생체중 140kg 이상이 되기까지는 교배해서는 안된다. 또한 교배시점에 돼지의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초산돈에서도 산자수가 많고, 그후에도 다수의 자돈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배시점에서 충분히 키워야 한다.

예를 들면 7개월령에서 첫회 교배한 초산돈의 경우 3산차가 되기 까지 대부분의 모돈은 도태되어 버린다. 이는 양돈장에 있어서 중대한 손실이다. 왜냐하면 모돈의 번식성적의 절정

은 3~5산차에서 오기 때문이다.

초산돈의 교배는 인공수정보다도 자연교배 쪽이 좋다. 또한 반드시 2회 종부한다. 그 후 곧바로 스톨에 옮겨 다른 모돈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한다. 교배가 끝나면 급이량은 1.8kg/일로 제한한다. 이 급이량을 분만 1개월전까지 유지하고, 그 후 준부단급이로 이행한다. 이 시점에서의 급이량은 3.5kg/일이다. 그리고 분만후에는 1.5~2kg/일로 급이량을 줄인다.

분만시 초산돈은 좋은 상태여야 하지만 지나치게 비만해서도 안된다. 또한 임신중에 사료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수유중에 식욕이 저하한다는 문제도 있다. 간단히 말해 균형의 문제이다.

크리스텐슨 씨의 목표는 초산차의 이유두수는 11~12두이다. 현재 크리스텐슨 씨가 자문하고 있는 농장중 3농장은 평균 12두 이상을 달성하고 있고, 어느 농장은 거의 13두에 가까운 성적을 올리고 있다.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품종으로서 모돈은 LW(L우×W상)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WL(W우×L상)이 아니다].

LW와 WL의 차이는 이유두수에서 약 0.5두, 그리고 LW쪽이 유선발달, 비유량, 모성 면에서 우수하다. 